



희망찬 丁亥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도 전기인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고유가 상황의 지속과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조치 등 국제적으로 에너지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전력사업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이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된 한 해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에너지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국가에너지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가동함은 물론 2030년까지 국내 에너지소비량의 35%를 해외에서 개발하여 에너지 자주 개발 국가로서의 위상을 세우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LNG발전소 17기, 석탄 발전소 14기, 원자력발전소 8기와 수력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총 3,442만 kW의 발전설비를 확충하는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중·장기적 에너지정책 환경의 변화 가운데에서 우리 전기계는 지난 한 해 나름대로 국민생활의 안정과 산업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회원사를 비롯한 많은 전기계 종사자들의 열정과 혼신의 노력 덕분에 대·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발전설비 용량이 6,500만 kW를 넘어섰는가 하면 140만 kW급 차세대원자로의 개발 등 발전분야를 비롯한 송전, 변전 및 배전 등 모든 전력산업분야에서 기술개발과 실용화 등 자립기반 구축을 꾸준히 다져왔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해상철탑시공 신공법을 개발하여 345kV 영흥 해상송전선로를 건설하고 선진국에서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220V 배전전압 승압사업을 30년에 걸쳐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경영관리 능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미국 에디슨전기협회에서 수여하는 2006년 에디슨 대상을 한전이 수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력분야 해외진출 사업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국 허난성 지역의 열병합발전소 완공과 중국 최대의 풍력단지로 조성되는 내몽고에 풍력발전소 준공 등 중국 시장의 공략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루마니아 등 동구권과의 원전 부문 협력체결과 함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레바논 및 리비아 등에서의 잇단 전력분야 계약체결로 전력사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대한전기협회도 이러한 전력산업의 발전과 보조를 같이하고 급변하는 주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비전으로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5단계 사업에 착수하였고, 5개의 고시로 운영중인 기술기준을 하나의 ‘전기설비기술기준’으로 고시했으며,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도 대폭 개정하여 발간했습니다.

각종 조사연구 사업과 뉴스레터 발간 등 회원서비스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으며, 일본전기협회와 ‘제1회 한·일전기기술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정보교환과 국제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

전기인 여러분!

올해 우리 전기협회는 급변하는 국내외 기술변화와 시장경쟁체제로의 무역환경 변화 등에 적극 대처하고 WTO/TBT협정과 조화되도록 전기사업법 기술기준의 국제화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력산업기술기준 5단계 2차년도 개발사업과 함께 발전사업자, 제작사 및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자격인증과 공인검사감독원 등에 대한 자격인정제도를 적극 시행 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전기부문 표준품셈을 현실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제정 및 개정해 나갈 것이며,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였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기술로서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는 기술에 대한 전력신기술 지정심의업무도 효율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력산업기술이 세계 전력산업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해외수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제 수행과 다양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며, 장차 우리나라 전기계를 젊어지고 나갈 유능한 전기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좀 더 확대,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기의 날(4월 10일)을 기념하여 「제21회 전기산업진흥축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정부 훈·포장 수여와 함께 전기계의 가장 권위 있고 전통을 지닌 이 행사를 계기로 국가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온 우리 전기인들의 사명과 긍지를 다짐하는 뜻 깊은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제2회 한·일 전기기술교류회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이 기간 동안에 개최될 예정으로 전기계 종사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전기인 여러분!

올해도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으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에너지 절약 및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전력 및 에너지 관련 이슈들은 우리 전력계 모두가 슬기를 모아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기협회도 설립목적인 전력분야 기술의 진보와 발전을 도모하여 사회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협회를 성원하고 협조해 주신 회원님들과 전기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이 협회 발전을 위한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전기인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새 아침
대한전기협회 회장 **한 준 호**